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가 너무 무섭다>의 줄거리 :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선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인가. 혹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까 봐 너무 두렵다.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대부분 선민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리고 불합격까지 시켜드린 채로 삶을 사는 중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가 너무 무섭다

(출애굽기 17:1~7)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

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7절에 기록된 맛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므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가 너무 무섭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은 므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으로 사는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5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면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선민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유일한 있음인 여호와 하나님을 없음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를 직접 만나면 저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끼지 않는 것은 무섭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을 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전혀 무섭게 느끼지 못합니다. 눈앞에 제가 있다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도 ‘목사님,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제시한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

을 불합격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있음 시험을 제출하고, 그 있음의 시험에서 불합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감 없이 살게 됩니다. 있음의 시험에서 불합격시킨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언급된 르비딤은 '쉼,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은 여러 샘과 개울물이 넉넉해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르비딤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도착했을 때 갈증을 해갈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르비딤은 물이 바짝 말라 있었고, 이스라엘은 기대만큼 큰 실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실망감에 젖어 분노 섞인 원망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곳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것이 7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 시험을 치르게 했고 불합격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므리바에서 한 차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왔듯이,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매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 교회사를 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는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시험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말씀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함이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있음인가, 없음인가를 확정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만한 것인가? 아니면 존재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인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음 시험을 출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보시고 당신의 있음을 증명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 있음 시험을 강요했고 불합격 처리한 것입니다. 있음

시험에서 불합격했기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음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당연히 존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에 의해 있게 되는 중이기에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있음을 시험하고 불합격시키며 존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 시험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살아계심을 교리로 믿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불합격시킨 것입니다. 있음에서 불합격했기 때문에 존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교리로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도저히 느낄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음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이 있다면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시험이란 죄악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있음 시험에서 합격의 기준은 내 갈증의 해소입니다. 갈증이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실제로 없는 상태입니다. 몸만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갈증을 느낍니다.

이와 관련하여 르비딤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물에 대한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이 넉넉하다고 소문이 난 르비딤을 향하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바짝 말라 물을 구할 수 없었고 이들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이 없음에 불평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음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판정을 내릴 기세입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함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갈증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물을 얻는 일에 하나님이 기여하시고 이바지하시는 바가 없다고 여겨지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있음 시험에서 불합격시킵니다.

말씀드렸듯이 갈증은 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 간절히 갈증을 느끼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일에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마음으로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을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의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

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권자로 되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있음을 없음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형적인 신앙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이들이 매긴 있음 시험의 성적표를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은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을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후 출애굽 한 이스라엘은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끼어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여하신 바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모세에게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위기 극복에 대한 갈증을 느끼던 중에 하나님이 기여하시는 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있음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이 떨어지고, 마라에 도착하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여하시는 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있음 시험에서는 하나님을 불합격시켰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때는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을 합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다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중에 하나님이 기여하시는 바가 없다고 여기며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을 불합격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제출한 하나님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여하시는 바가 없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면 이미 있음의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승진과 성과를 위해서 하는 대로 나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여하시는 바가 없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을 불합격 처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음 시험에서 합격하시고 존재감을 증명하실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갈증 해소에 기여하시고 이바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바지하시는 바가 없다고 여겨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있음의 존재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배당 종교 생활은 기독교 문화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극성스러운 교단에서는 아직도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한 내 갈증에 기여하십시오. 그러면 있음 시험에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강요하는 셈입니다.

예배당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갈증을 나게 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해서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장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뇌물을 주면 잘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동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음 시험을 치르게 했고,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을 불합격시켰습니다. 내 마음에서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세상 것을 원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인간의 마음은 채움을 위한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백에서 생겨나는 갈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세상을 향해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갈증 자체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민이라면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바랄 수 없습니다.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란 세상일에 대해 하나님이 기여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서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본문은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가에 대한 내막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갖는 소원에 대해 기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소원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에 믿음은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세상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있음을 느꼈는데도 사흘 만에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세상에 대한 갈증을 기준으로 삼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구경만 했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의 있음을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갈증에 막힌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있음을 충만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경하고 관광하며 좋아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있음을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있음 그 자체가 곧 마음의 갈증 해결을 위한 유일한 생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세상 것을 소원할 때 하나님의 있음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여하시나 보면서 하나님께 있음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있음을 합격시키더라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있음은 마시는 있음이 아니라 구경하는 있음입니다. 마치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면 분명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기에 코끼리를 만질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철조망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는 철조망 바깥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구경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있음 자체가 내게 생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소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갈증을 느낄 때만 하나님의 있음은 해갈의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3~5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할 때 세상에 대한 갈증은 죽습니다. 마음의 갈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는 방향성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갈증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

어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갈증을 느꼈고, 가정에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승진하면 좋겠다. 아내가 더 친절하면 좋겠다. 벌이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아이들이 앞가림을 잘하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이 세상 형통에 대한 갈증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갈증이 하나도 해갈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갈증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교육이 됩니다. 그렇기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수없는 있음 시험에서 하나님을 불합격 시킨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갈증을 채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선민이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갖게 되는 갈증 자체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에 대한 갈증, 성과에 대한 갈증, 보너스에 대한 갈증, 사장님의 칭찬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갈증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 방향을 바꾸고 그리스도 연쇄 과정 속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있음이 되시면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바싹 말라 있었고 정작 물이 나온 곳은 모세가 친 반석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광경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나는 지금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좋아져야 갈증이 해갈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해갈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붙잡고 갈증을 느끼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기여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있음 시험에서 불합격시켜서 없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문화적으로는 예배당 종교 생활을 지속할지라도,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부인하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있음 시험에서 불합격시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 이유는 세

상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그 갈증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더라도 세상에 대한 갈증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하나님을 구경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돈 갈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갈증은 일시적으로나마 해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해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마시면 이상하게 돈에 대한 갈증도 없어집니다. 돈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는 이유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어서 갈증의 방향을 돌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갈증이 해갈되어서 내 마음에서 갈증이 생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갈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있음은 반석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있음의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소원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있음을 확정해야 할 대상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 것을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있음을 본다면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세상 소원과 하나님이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있음에 대한 존재감 없이 살게 됩니다. 오늘도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다면 세상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소원 다음에 존재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소원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을 소원하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 수 없다면 내 마음의 갈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증이 고정되기만 해도 이 세상 모든 갈증은 해결됩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쪽으로 고정만 시켜도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시험하는 왜곡되고 변태적인 죄악 된 신앙 상태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은 세상 소원 너머를 구경하면서 합격과 불합격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소원 대신에 내가 직접 마셔야 하는 생수입니다. 생수인 하나님의 있음과 존재감은 오직 반석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

나옴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오랜 세월과 너무 많은 분량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세상 것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있음을 반복하여 시험하며 불합격시켰고 하나님의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월이 십자가에서 죽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있음의 존재감으로 인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소원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생수를 공급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